

양촌선생(陽村先生)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

▣ 이광호 (연세대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비(比)

“단전(象傳)비는 길하며 비는 돕는 것이니 아랫사람이 순종한다(比吉也, 比輔也, 下順從也).”

본의(本義)에서는 “비는 길하며(比吉也)”라는 세 글자는 연문(衍文)인 듯하다”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비는 돕는 것이니 아랫사람이 순종한다’는 말은 ‘비’자를 해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는 길하다’의 의미를 아울러 언급하고 있다. 즉 비가 길한 까닭은 비가 친밀하게 보필하는 도이고 아랫사람들이 모두윗 사람에게 순종하므로 위아래 모두가 그 길함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소축(小畜)

뽕뽕이 구름 끼고 비오지 않는 것은 내가 서쪽들로부터 하기 때문이. [密雲不雨, 自我西郊].

동북쪽은 양(陽)의 방위이고 서남쪽은 음(陰)의 방위이다. 양이 부르고 음이 화답하면 상호 작용하여 비를 만들지만 음이 앞서 부르면 양이 화답하지 않아서 비가 오지 않는다. 생각건대 지금 사람들의 말에 서쪽을 물의 원천[水源]이라 하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흙비바람(霾風) [매풍]이라고 한다. 먹구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반드시 비가 오고, 온화한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면 비가 내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음의 방위인 서남쪽에서 먼저 부르는 것처럼 보여 이괘의 말과 다른 듯하다. 그러나 구름이 동

북쪽을 향하면 비가 내리는 것은 양이 동북쪽에서 먼저 부르고 음이 서남쪽에 가서 응하기 때문이다. 구름이 서남쪽을 향하면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음이 서남쪽에 있으면서 먼저 부르고 양이 동북쪽으로부터 가응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양이 먼저 부르는 것은 보지 못하고 다만 서쪽의음이 양의 부름에 화답하여 구름을 일으키면 반드시 비가 내린다는 것만을 보기 때문에 ‘서쪽을 물의 원천이라 한 것이다.

이 괘에서 ‘뽕뽕이 구름 끼고 비오지 않는 것은 내가 서쪽들로부터 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은 뽕뽕한 구름이 서쪽들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뽕뽕이 구름 끼고 비오지 않는 것’이 애초에 내가 음측 방위에서먼저 부르기 때문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뽕뽕한 구름은 동쪽에서서쪽 들로 가는 것이니 지금 사람들이 보는 것과 차이가 없다. 정자(程子)가‘장안(長安)에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내린다”라고 한 것 또한 이러한 이치이다.

『본의(本義)』는 “‘나’는 문왕(文王) 자신이다. 문왕이 유리(姜里)에 갇혀 역을 연역할 때 기주(岐周)가 서쪽이며 바로 소축의 상황이었다”라고 하였다. 군주가 부르고 신하가 화답하면 반드시 공이 이루어지니 이는 마치 양이 부르고 음이 화답하여 비와 서리가 내리는 것과 같다. 문왕이 주왕(紂王)의 시대를 맞아 상(商)을 배반한 나라들을 이끌고 주왕을 섬겼다. 이것이 어찌 주왕을 바로잡고 보필하여 구름이 응적이고 비가 내리는 은택을 천하에베풀고 싶지 않아서였겠는가? 그

가 만일 주왕에 호응하지 않았다면 어찌 됐겠는가? 그 때문에 문왕이 충성스럽고 지극한 덕을 다했음에도 끝내 유리에 갇히는 환난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하물며 바로잡고 도와 은택 베풀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소축의 상황에 처하여 문왕이 갇탄하여‘나’라고 칭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초구(初九) 도에 따라 회복하니 어찌 허물이 되겠는가? 길하다[復自道, 何其咎, 吉](복자도, 하기구, 길).

「상전(象傳)」‘도에 따라 회복한다’는 말은 그 의미가 길하다는 것이다[‘復自道’, 其義吉也]. 구이(九二) 이괄어서 회복하니 길하다(率復, 吉).

「상전(象傳)」‘이끌어서 회복한다’는 것은 가운데 있기 때문이니 또한 스스로 잃지 않는다[率復, 在中, 亦不自失也]

내가 생각건대, 소축(小畜)은 음 하나에 양이 다섯인 괘로서 하나인 음이 외괘(外卦)의 밑에 있다. 복(復)은 양 하나에 음이 다섯인 괘로 하나인 양이 내괘(內卦)의 밑에 있다. 복의 경우 다섯 음이 위에 있어 양이 미세하지만 소축의 경우는 하나의 음이 위에 있어 양이 강성하므로 복에는 잃어버린 것이 회복하는 상이 있지만 소축은 처음부터 잃는 것이 없다. 복 초구(初九)에 “머지않아 회복한다”고 한 것은 잃어버린 것을 오래지 않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이다. 소축 초구에 “도에 따라 회복한다”는 것은 구(九)가 건체(乾體)에 자리하여 본디 그 양을 잃지 않고 그 나이가갑고 회복함이 도에 따라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다음호에 계속>

論語解說(16)

논어 해설

▣ 權貞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지난호에 이어)

제5편 공야장(公冶長)

(제17장)

공자가 말하였다. “장문중이 채 땅에 큰 거북을 집에 놔두고 기둥머리에 산을 아로새기고 대를 보위 받침대에 물풀 무늬를 그린 방에 틀어 놓았으니 어찌 그를 지혜롭다 아니하겠는가?”

[원문]

子曰 臧文仲은 居蔡하되 山節藻梲하니 何如其知也니오. [자왈 장문중은 거채하되 산절조절하니 하여기지아니오.]

[이해]

장문중[臧文仲]은 노나라 대부 장손진[臧孫辰]을 가리키며 대부는 점을 칠 때 시초를 사용하는 것이 예법인데 국군[國君]에게나 해당하는 특별한 문식[文飾]을 배운 방과 큰 거북 경결점을 자기 집에 설치하였으므로 이는 귀신을 모독하는 처사일뿐더러 그것이 예법에 벗어나는 처사인 것조차 모르는 정도라 치면 그가 지혜롭다 할 수 없다는 공자의 비판이다. 여기서 원문 거는 감춤의 뜻이다.

제18장

자장이 물었다. “영윤 자문은 세 차례 벼슬을 하여 영윤이 되었지만 기본 기색이 없었으며 세 차례 벼슬살이를 그만뒀지만 성내는 기색이 없었고 구입 영윤에 정책을 반드시 신임 영윤에게 알려주었으니, 이 사람은 어떠합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충성스럽다.” 자장이 물었다. “인자 할까요?” 공자가 말하였다. “알 수는 없지만 어찌 인자할 수 야 있겠느냐.” 최자가 제나라의 임금을 시해하자 진 문자는 십 승의 마차를 징발 할 수 있는 재산을 버리고 떠나가 다른 나라의 이르러서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대부 최자와 비슷하다면서 그곳을 떠나갔고 또 한 나라의 가서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대부 최자와 비슷하다면서 거기서 떠나갔으니 이 사람은 어떠합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깨끗하다.” 자장이 물었다. “인자 할까요?” 공자가 말하였다. “알 수는 없지만 어찌 인자 할 수야 있겠느냐.”

[원문]

子張이 文曰 令尹子文이 三仕爲令尹하되 無喜色하며 三已之하되 無愠色하여 舊令尹之政을 必以告新令尹하니 何如니까 子曰 忠矣나라 曰 仁矣乎릿까 曰 未知라 焉得仁이리오 崔子弑齊君이어는 陳文子有馬十乘이러니 棄而違之하고 至於他邦하여 則曰 猶吾大夫崔子也라하고 違之하며 之一邦하여 則又曰 有於大夫崔子也라하고 違之하니 何如이니까 子曰 清矣나라 曰 仁矣乎릿까 曰 未知라 焉得仁이리오. [자장이 문왈 영윤자문이 삼사위 영윤하되 무희색하며 삼이지하되 무은색하여 구령윤지정을 필이고신영윤하니 하여니이까 자왈 충의니라 왈 인의호릿까 왈 미지라 언득인이리오 최자시제군이어 늘 진문자유마십승 이러니 기이위지하고 지어타방하여 즉왈 유어대부최자야라하고 위치하며 지일방하여 즉유왈 유어대부최자야라하고 위치하니 하여이니까 자왈 청의니라 왈 인의호릿까 왈 미지라 언득인이리오.]

[이해]

영윤[令尹]은 초[楚]나라의 상경[上卿] 벼슬로 집정자를 가리키며, 자문[子文]은 성[姓]이 투[鬪]. 이름은 곡[穀]. 자는 어토[於菟]로 매우 현명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최자[崔子]는 제대부[齊大夫]로 이름이 제[柎]며 국군[國君] 장공[莊公]이 자기 처[妻]와 사통[私通]한데 격분하여 시해하였다. 진문자[陳文子]도 제나라의 대부로 이름은 수무이고 십 승은 네 필의 말이 끄는 균용차 열 대의 수량이다.

제19장

계문자[季文子]는 매사를 세 차례씩 생각해본 뒤에 실행에 옮겼다. 공자[孔子]가 듣고서 말하였다. “두 번만 생각해도 된다.”

[원문]

季文子가 三思而後에 行하러니 曰 子聞之하시고 曰 再思可矣니라. [계문자가 삼사이후에 행하러니 왈 자문자하시오 왈 재사가의니라.]

[이해]

계문자[季文子]는 성[姓]이 계[季] 계손[季孫]. 이름은 행보[行父]. 문[文]은 시호이다. 모든 일에 신중한 것은 좋지만 몇 번

씩 거듭해서 생각하다보면 도리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거나 과당성이 걸려될 우려가 높은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제20장

공자가 말하였다. “영무 자는 나라의 정도가 시행될 수 있을 때는 지혜로웠고, 나라의 정도가 시행될 수 없을 때는 우둔하였으니, 그 지혜로운 점을 따라잡는 것이 가능하나 그 우둔함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문]

子曰 甯武子는 邦有道則知하고 邦無道則愚하니 其知는 可及也러니와 其愚는 不可及也니라. [자왈 영무자는 방유도즉지하고 방무도즉우하니 기지는 기급어러니와 기우는 불가급어니라.]

[이해]

영무자[甯武子]는 위[衛]나라 대부[大夫] 영유[甯俞]로 무[武]는 시호이다. 영무자[甯武子]가 위나라 문공[文公]을 섬길 때는 정도가 행하여 쫓겨에 남들과 비슷하게 청신했지만 성공을 섬길 때는 성공[成公]이 무도하여 나라를 잃고 천자[天子]가 있는 경사[京師]에 잡혀 구금돼 갖가지 고난과 위험을 피하지 않고 여러 수단방법을 동원한 끝에 결국 국군을 귀환케 하였으므로 그런 일은 지교[知巧]로 보신[保身]하는 일반사람들은 해낼 수 없는 행동이라는 공자의 견해다.

제21장

공자가 진나라의 있을 때 말하였다.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야겠다. 내 고향의 젊은 사람들은 포부는 크지만 면밀하지 못하여 찬란하게 문체는 이루어으나 그것을 올바르게 재량 할 줄 모르고 있다.”

[원문]

子在陳하사 曰 歸與인저 吾黨之小子는 狂簡하여 斐然成章이나 不知所以哉之로다. [자제진하사 왈 귀어인저 오당지소자는 광간하여 비연성장이나 불지소이재지로다.]

[이해]

공자가 사방을 주유하며 자신의 도를 이루어했으나 이상에 맞는 군주를 만나지 못해 당시의 여러 제후국사이를 방랑하다가 진에 이르러 차리리 고향인 노나라로 돌아가 버릴까 싶은 충동이 이러났지 않은가 싶은 대목이다.

<다음호에 계속>

특기고

<54회>



<성균관 1천만 유림의 이름으로 발표된 문창국 총리 지명자 자진 사퇴 촉구 성명서>

반역사적이

고 반민족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대한민국의 총리가 될 수 없다. 1천만 유림은 문창국 총리 지명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문창국은, “우리는 조선왕조 5백년을 허송세월 보냈으니 시련이 필요하다”고 망언하였다.

조선왕조는 5백년이니 이어진 문민 국가의 모범이었다. 이는, 같은 시기 다른 나라가 혼란과 폭동을 겪었음과 비교해 보면 더욱 그렇다. 선비들이 경연(經筵)에서 임금을 가르치고, 사관이 임금의 간섭을 배제하여 실록을 편찬하고, 임금이 사림의 공론(公論)을 경청했던 나라가 그 어디에 있었단가!

그리고, 조선이 망한 것이 우리 자신의 잘못이었단가?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문명국가를 침략한 것이었다. 강도가 집안에 쳐들어오면 먼저 강도의 야만성을 규탄해야지, 집안사람들이 모질지 못했다면서 자책부터 하는 것이 아니다. 문창국은 또한, “조선민족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한 것이며, 이러한 민족성을 바꾸기 위해 식민지배가 필요했다”고 망언하였다.

일제의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니, 이 자의 반민족적이고 몰지각한 역사인식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미개한 민족은 지배받아도 된다는 제국주의자들이나, 열등한 민족이니 개조되어야 한다는 친일반역자들의 망령이 되살아났는가? 이런 낫 빠진 인간이 어찌 일국의 총리가 될 수 있으리오! 그

항일독립운동의 선봉 애국지사 백인(百忍) 권준(權俊) 장군<6>

▣ 權仁浩 (철학박사,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리고,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률을 계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항일의병과 삼일운동의 맥락을 계승하고 있는 것인만큼, 문창국은 대한민국 총리로서 지극히 부적절하다.

문창국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남북분단도 당연시했으며, 미국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을 6.25를 주었으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망언하였다. 문창국은 일제의 식민통치, 그리고 동족상잔과 국토폭탄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을 진정 모른단 말인가! 이 과정에서 희생된 그 많은 동포들에 대한 기억조차 없단 말인가! 참으로 무지하고 한심한 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외세에 굴종적인 자세와 편협한 역사인식을 보여주었으니, 어찌 대한독립국가 총리의 자질이 있다고 하겠는가!

서양 제국주의의 그릇된 사관에 사로잡힌 이런 자가 국무총리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일본 우익이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이즈음에,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총리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나라의 존엄과 선열을 모독한 문창국은 역사와 민족 앞에 무릎 꿇어 사죄하고, 자진사퇴한 것이 당연한 일이다.

성현의 위패를 모신 성균관은 6백년 이상 동방예의지국을 건설했던 수선지지(首善之地: 나라의 으뜸가는 가치를 밝히는 곳)로서, 교화(教化)와 교육(教育)의 중심이었고, 민족정기와 선비정신의 요람이었다. 이에 우리 1천만 유림은 정의(正義)와 애족(愛族)의 충정(忠情)을 담아, 문창국의 망언을 엄중 규탄하고 그 사퇴를 요구하였다. (2014년 6월 13일 성균관 1천만 유

림 일동)

한편 문창국 총리후보자의 조부 독립유공자 진위 논란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6월 23일 “대한독립단 대원으로 활동한 애국지사 문남규와 문창국의 조부가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일인명사전” 등을 발간한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는 애국지사 문남규 선생이 문창국 후보의 조부와 동일인이라고 국가보훈처가 확인했다는 보도 직후 “애국지사 문남규 선생과 문창국 후보의 조부가 동일인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의 홍성 견해는 “문남규 선생은 1920년 삭주에서 전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의 출생지 등 인적 사항은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6월 10일 청와대는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에 국정과제를 잘 제대로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생각 한다.”고 문창국을 총리후보자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각계의 반응이 확연하게 양분된 가운데, 여론조사에서는 약 70% 정도가 ‘사퇴해야 된다’로 나왔었다. 문창국 후보자는 청와대의 지명 보름만인 6월 24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사퇴했다.

김준 장군은 앞서 연재에서 밝힌바 대로, 김일봉 등 13명과 더불어 의열단(義烈團)의 창립 단원이었다. 의열단은 1919년 11월 9일 밤 만주 길림성 파호문 밖 중국인 반(潘) 씨의 집에서 조직된 항일 비밀결사였다. 의열단원들은 무력 항쟁을 통하여 일제 조선총독부의 통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 큰 역할을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明心寶鑑

명심보감

▣ 권혁재 (본원 종사 연구위원)

(총의지사출)이니 可不義哉(거부양재)아

해설: 경행록에 이르기를, “나무를 잘 기르면 뿌리가 튼튼하고 가지와 잎이 무성하여 동랑(棟梁)의 재목을 이루고, 수원(水源)을 잘 만들어 놓으면 물줄기가 풍부하고 흐름이 길어서 관개(灌漑)의 이익이 널리 베풀어지고, 사람을 기르면 지기(志氣)가 뛰어나고 식견(識見)이 밝아져서 충의(忠義)의 선비가 나온다. 어찌 기르지 아니 할 것인가.”고 하였다.

참고: 漆.우 칠, 似.갈을 사, 鏡.거울 경, 朝.아침 조, 薄.얇을 박, 晷.어두울 모, 저물 모, 晡.신시 포(申時-지금의 오후 3시 ~ 5시 사이를 말함), 測.헤아릴 측, 風.바람 풍, 雨.비우, 歸.돌아갈 귀, 墳.무덤 분, 養.기를 양, 根.뿌리 근, 圃.군을 고, 枝.가지 지, 茂.성할 무, 棟.기둥 등, 棟.보보량, 泉.샘천, 源.근원 원.派.물결 파, 灌.물달관, 漑.물달 개, 哉.비로소 재, 棟梁之材-기둥과대들보를 만들 수 있는 재목.

●自信者(자신자)는 人亦信之(인역신지)하나니 吳越(오월)이 皆兄弟(개형제)요 自疑者(자의자)는 人亦疑之(인역의지)하나니 身外(신외)-皆敵國(개적국)이니라. 해설: “스스로 믿는 사람은 남도 또한 자기를 만나니 오나라와 월나라와 같은 적국 사이라도 형제와 같이 될 수 있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자는 남도 또한 믿어주지 아니하니 자기 이외에는 모두 원수와 같은 나라 적국이 되느니라.”

참고: 吳..나라 오, 越..나라 월, 넘을 월, 건을 월, 疑..의심할 의, 吳越-전국시대의 월나라와 越나라를 말하는 것으로 오왕 부차(吳王 夫差)와 월왕 구천(越王 句踐)이 싸워 서로 원수의 나라 사이였다.

●疑人莫用(의인막용)하고 用人勿疑(용인물외)니라. 해설: 사람을 의심 하거든 쓰지 말고,



사람을 쓰거든 의심하지 말지니라.

●諷諫에 云(풍간에 왈) 水底魚天邊 雁(수저이천변안)은 高柯射兮低柯釣

(고유사해저가조)아니와 惟有人心咫尺間(유유인심지척간)에 咫尺人心不可料(지척인심불가료)니라.

해설: 풍간에 이르기를, “물속 깊이 있는 고기와 하늘 높이 떠 날으는 거러기는 쏘고 낚을 수 있거니와 오직 사람의 마음은 바로 가까운데 있음에도 이 지척간에 있는 마음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고 하였다.

참고: 諷諫(풍간)=책 이름(윗사람에게 직언-直言하여 잘못을 고치게 하는 말을 뜻 함), 諷...의을 풍, 諫...간할 간, 底...밑 저, 邊...자트 변, 雁...거러기 안, 射...쏘 사, 釣...낚을 조, 咫...지척 지, 料...헤아릴 료(요)

●畫虎畫皮難畫骨(화호화피난화골)이요 知人知面不知心(지인지면부지심)이니라

해설: “호랑이를 그리되 가죽(모양)은 그리 수 있으나 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알되 얼굴은 알지만 그 마음은 알 수 없느니라.”

●對面共話(대면공화)하되 心隔千山(심격천산)이니라.

해설: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이야기는 하되 마음은 천산(千山)을 사이에 둔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다.”

●海枯終見底(해고종견저)나 人死不知心(인사부지심)이니라.

해설: “바다는 마르든 마침내 그 바닥을 볼 수 있으나, 사람은 죽어도 그 마음은 알지 못하느니라.”

참고: 畫..그림 화, 皮..가죽 피, 骨..뼈 골, 隔..막힐 격, 話..말씀화, 枯..마를 고, 死..죽을 사, 終..마지막 종, 虎..범 호, 知..알 지.